

“국내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군정 실현 박차”

2025년 완도군 현황·주요 역점사업

#현황
 · 인구수 4만5631명
 · 예 산 6214억원
 · 직원수 751명

#역점사업
 · 해양치유 활성화
 ·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 대규모 국책 SOC 사업 추진
 · 완도형 농수축산업 시행
 · 행복 시책 편성 군민 행복지수 향상
 · 정주 여건 개선 균형 발전



2025 새해설계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등 6대 방향
 ‘치유의 섬, 완도 방문의 해’ 선포
 대규모 국책사업 SOC 집중 추진도
 정주 여건 개선으로 균형 발전 도모

“2025년 신년 화두를 ‘비상천리(飛上千里)’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완도군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8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은 을 사년 새해 구상을 밝혔다.

신 군수는 지난해 미 항공우주청과 에너지부를 방문해 해조류산업의 비전을 모색하고 해양치유센터가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6관왕을 달성한 점,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음을 언급하며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완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6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군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6대 방향은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완도로서 가능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대규모 국책 사업과



신우철 완도군수.

SOC 사업 추진 △완도자연그대로 농수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 △군민의 삶과 가까운 행복 시책 추진 △정주 여건 개선·균형 발전 도모 등이다.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년을 ‘치유의 섬, 완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해양치유센터 내실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4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실현하고 해안도로 경

관 명소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방침이다.

‘완도로서 가능한 해양바이오산업’에서는 해조류 스마트 팩토리 건립, 해조류 신소재 개발,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 등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국책 사업과 SOC 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등 지역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대형 사업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수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복 생산량 조절, 신품종 개발, 해조류 품종 개발, 축산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민의 삶과 가까운 행복 시책’으로는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 출생 기본수당 지원, 청년 공공임대 주택,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폭넓은 복지 정책으로 군민 행복을 증진시킨다.

‘정주 여건 개선·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도시재생, 자연재해 위험 개선, 권역 거점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방침이다.

신우철 군수는 “2025년에도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며 “순간의 노력이 미래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완도군, 어촌 활력 제고 해양수산 사업자 모집

55종, 285억원 규모

완도군은 어촌 활력 제고 및 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2025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2월3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은 총 55종, 285억원 규모로 주요 사업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양식 어장 정화 사업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연안·구획 어업 어선·어구 감척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수산물 대형·중형·소형 저온 저장시설 △친환경 에너지 보급 △미역, 다시마 종자 공급 등이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업인 단체, 수협 등으로 개별 사업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 관련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완도군은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등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완도군청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또는 읍면 사무소 농수산 팀에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완도군 관계자들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10~12월 완도군은 폐현수막을 수거해 마대자루 총 1533장을 제작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활용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고급 덕암산 일원 산림치유 생태공원 조성

숲속 무대·유아 생태 놀이원 등

완도군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생태 휴식 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고급 덕암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해 주민에게 휴식과 힐링할 수 있는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고급 덕암산 일대에 숲속 무대, 유아 생태 놀이원, 오색 초화원, 숲속 오두막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또 주민들이 새벽, 저녁에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할 예정

이다. 이를 위해 완도군은 지난해 10월 완료된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보통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군에서는 전남도를 찾아 적극 건의해 예산을 2개년으로 확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생태 휴식 공간 조성사업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완도군,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자루 제작

완도군이 행정안전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4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은 선거, 불법, 각종 광고에 일회

성으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여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추진했다.

군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폐현수막을 완도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해 수거했으며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가 참여해 폐현수막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용 마대자루 1533장을 제작했다. 마대자루 1533장은 읍면에 전달해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하는데 활용하고 환경 캠페인을 통해 주민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내달 7일까지 접수 예정

완도군은 오는 2월7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전 완도군에 주소를 두면서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

는 경영주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 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본인 건강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한 부모, 차상위, 장애 아동 수당,

희귀 난치성 질환, 국가유공자 급여 혜택 등을 받는 농어민의 경우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군은 2월 중순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60만원(완도사랑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가 입원 등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수령 확인서를 제출, 읍·면장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완도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